

2017년 경찰 2차 시험 한국사 해설(9월 2일 시행)

해동한국사 : 신영식 교수

1. 다음 중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방대한 석기가 출토되었다.
- ②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조개 가면은 국자 가리비에 사람의 눈과 입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형상으로, 집단의 공동체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③ 충북 제천 점밀동굴에서는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의 뼈가 출토되었다.
- ④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는 주먹도끼와 외날찌개가 출토되었다.

1. 정답 : ②

- ②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 패총 유적으로, 이곳에서는 사람 얼굴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조개껍데기 가면이 발견되었다.
- ① 전기 구석기 시대 유적인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는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이 외에도 구석기 시대의 석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③ 충북 제천 점밀 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코뿔이의 앞발뼈가 출토되었다. ④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은 전기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석영과 석회암으로 만든 주먹도끼 모양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2.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 |
|---------------------------------|--|
| ㉠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 ㉡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 ㉢ 한(漢)은 고조선 영토에 네 개의 구현을 설치하였다. | ㉣ 예(穢)의 남려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漢)에 투항하였다. |
| ㉤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도위 섭하를 살해하였다. | |

- ① ㉡→㉠→㉢→㉣→㉤
- ② ㉡→㉤→㉢→㉣→㉠
- ③ ㉡→㉢→㉣→㉠→㉤
- ④ ㉢→㉡→㉤→㉣→㉠

2. 정답 : ②

- ㉡ 기원전 194년 위만이 망명한 이후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위만 조선이 성립되었다. ㉢ 기원전 128년 압록강 중류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예군(穢君) 남려(南閭)가 28만 구(口)를 이끌고 위만 조선의 예속에서 벗어나 한의 요동으로 내속하였다. ㉣ 기원전 109년 한나라의 사신 섭하가 한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국경 부근의 폐수에서 섭하의 송별을 맡은 조선비왕(朝鮮裨王)을 척살하였고, 이를 계기로 섭하는 요동 동부도위에 임명되었다.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군사를 일으켜 섭하를 살해하였고, 이것이 한나

라의 고조선 침략의 결정적 구실이 되었다. ①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의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② 고조선이 멸망한 후 중국은 고조선의 영토에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3.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국천왕은 한미한 신분의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여 소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 광개토대왕은 왜국의 침략을 받은 신라를 도와 왜병을 낙동강 유역에서 섬멸하였다.

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② 전연의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궁궐이 불타고,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③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④ 위(魏)의 장수 관구검에 의해 환도성이 함락 당했다.

3. 정답 : ①

(가)는 194년 고국천왕의 진대법 실시, (나)는 400년 광개토 대왕의 왜구 격퇴에 대한 내용이다.

① 5세기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설명으로,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475)하여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에 이르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② 4세기 고국원왕 대의 내용이다. 346년 전연 왕 모용황이 보낸 군사의 침략을 받아 국왕 이하 5만여 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타격을 받았다. ③ 4세기 소수림왕 대의 내용이다. 소수림왕은 372년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중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④ 3세기 동천왕 대 위나라 관구검의 침공을 받아 도성인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밑줄 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야가 모반하였다. 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케 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이사부를 돋게 하였다. …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고 그 곳에 도착하니, 그들이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공로를 평가하는데 사다함이 으뜸이었기에 왕이 좋은 밭과 포로 2백 명을 상으로 주었다.”

①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于山國)을 정벌케 하였다.

② 건원(建元)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 개국(開國), 대창(大昌), 흥제(鴻濟)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김씨 왕위 계승 체제가 확립되었다.

4. 정답 : ③

밑줄 친 ‘왕’은 대가야 멸망과 관련된 6세기 신라 ‘진홍왕’이다.

③ 진홍왕은 시기별로 다양한 연호를 사용하여, 개국(開國, 551), 대창(大昌, 568), 흥제(鴻

濟, 572) 연호를 사용하였다.

①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하게 한 왕은 6세기 초반 지증왕이다. ② ‘건원’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한 왕은 6세기 법홍왕이다. ④ 기존의 박, 석, 김씨의 교대 왕위 세습에서 김씨 왕위 세습을 확립한 왕은 4세기 내물왕이다.

5. 다음 승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효는 다른 종파들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 ②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확립하고,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원융사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나 지배층 내부의 갈등을 지양하는 사회통합 논리를 제시하였다.
- ③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의 성지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④ 진표는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전수받아 독자적 유식학파를 세웠다.

5. 정답 : ④

④ 당에서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전수받은 승려는 원측이다. 진표는 유식 불교를 바탕으로 한 법상종 승려로,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미륵불이 지상에 와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믿음을 가르쳤다

①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통해 화쟁 사상을 제시하였다. ②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를 중심으로 화엄 사상을 강의하면서 조직화 된 화엄 교학의 체계를 전수하여 화엄종의 종조(宗祖)라 불린다. 또한, 하나 속에 만물을 아우르며, 우주의 다양한 현상은 곧 하나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이에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일즉다 다즉일’의 원융 사상을 설파하였다. ③ 신라의 승려였던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서역)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남겼다.

다음 밑줄 친 ‘왕’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지 못했음은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신년부터 을해년까지 16년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고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옛 신하와 장수들은 잇달아 죽음을 당하였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고려사』-

- ①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복색을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나누었다.
- ② 대상(大相) 준홍(俊弘), 좌승(佐丞) 왕동(王同)을 모역죄로 숙청하였다.
- ③ 국가 수입의 증대를 위해 주현공거법을 실시하였다.

④ 노비환천법을 실시하였다.

6.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최승로의 「오조정직평」 중에서 광종에 대한 평가 내용이다.

② 광종은 호족 세력에 대한 숙청을 하였는데, 그 발단이 된 것이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다고 참소하여 이들을 숙청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① 광종은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관등에 따라 자·단·비·녹색의 4색 공복제를 마련하였다. 자·비·청·황의 공복제는 신라의 제도이다. ③ 주현단위로 향리 자제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주현공거법은 현종 대 실시되었다. 광종 대는 주현 단위로 해마다 바치는 공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한 주현공부법을 실시하였다. ④ 고려 성종은 광종 대에 만든 노비안검법을 통해 해방된 노비가 원주민을 모독하거나 언행이 불량한 경우, 다시 천민으로 환원시키는 노비환천법을 제정하였다.

7. 고려 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 | |
|-------------|------------|
| ⑦ 강감찬의 귀주대첩 | ㉡ 강동 6주 획득 |
| ⑩ 강조의 정변 | ⑨ 별무반 창설 |
| ⑩ 천리장성 축조 | |

- ① ㉡→㉠→㉡→㉠→㉡
② ㉡→㉡→㉠→㉡→㉡
③ ㉡→㉠→㉡→㉡→㉡
④ ㉡→㉡→㉠→㉡→㉡

7. 정답 : ①

㉡ 강동 6주 획득은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에 대한 결과로 993년, ⑩ 강조의 정변은 거란의 2차 침입의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1009년, ⑦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때인 1019년, ⑩ 천리장성 축조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북방민족에 대한 대비를 위해 만든 것으로 103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044년에 완공, ⑨ 별무반 창설은 윤관의 건의로 여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1104년의 일이다.

8.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이다.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며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 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父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上國)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5년이며, 수(壽)는 51세였다.

-『고려사절요』-

- ①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그 안에 팔성당을 설치하였다.
② 중앙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하고,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③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하였다.

④ 원나라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8. 정답 : ④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 사이에 태어난 충선왕에 대한 내용이다.

④ 충선왕은 원나라 연경에 학문 연구소인 만권당(萬卷堂)을 설치하여 고려의 이제현과 원의 조맹부 등의 학자들이 학문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서경의 대화궁 건립은 인종 대의 사실이다. 인종은 묘청, 백수한 등의 주청을 받아들여 서경으로 자주 행차하였고, 임원역(林原驛) 근처에 대화궁을 지었다. ②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하고 국학의 장학 기금인 양현고를 설치하여 관학을 진흥 시키고자 한 왕은 예종이다. ③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게 한 왕은 공민왕이다.

9.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② 유교적 입장에서 고구려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③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였다.

④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이사관을 배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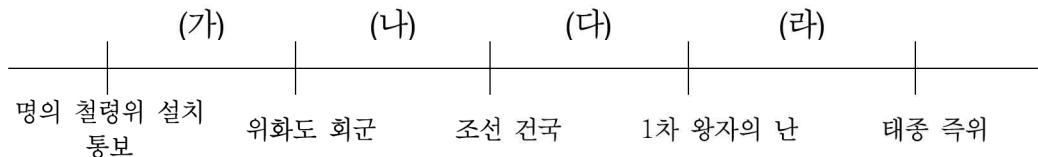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9. 정답 : ④

④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화나 전설 등의 내용 등을 저술하지 않았다.

①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사마천의 『사기』의 기술 방식과 같이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②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고, 신라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받는다. ③ 『삼국사기』는 문벌귀족 집권기인 인종 재위기에 편찬되었다. 원의 간섭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한 역사서로는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이 있다.

10. (가)~(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김용이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홍왕사에 침범했다가 죄영에 의해 격퇴되었다.

② (나) - 이성계 일파는 폐가입진을 명목으로 우왕과 창왕을 연이어 폐위시켰다.

③ (다) - 명은 표문의 글귀가 불손하다는 구실로 정도전을 명으로 암송할 것을 요구했다.

④ (라) - 박포가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10. 정답 : ①

명의 철령위 설치는 1387년, 위화도 회군은 1388년, 조선 건국은 1392년, 제1차 왕자의 난은 1398년, 태종의 즉위는 1400년의 일이다.

① 공민왕 11년(1362) 김용이 홍왕사 행궁에 머무르던 공민왕을 시해하려다 실패한 사건인 홍왕사의 변이 일어났다.

② 1389년 이성계와 결탁한 혁명파 신진 사대부가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자식이라 하여 잇따라 폐위한 후, 신종의 7대손인 공양왕을 옹립(폐가입진)하였다. ③ 조선 태조 4년(1395) 명나라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 정월 조선에서 보낸 신년 표전문 가운데 경박하고 황실을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표전문을 쓴 사람을 압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④ 제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박후가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이방원의 형인 방간과 손을 잡아 반란을 일으켰다(1400, 제2차 왕자의 난).

11. 밑줄 친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지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열조통기』-

① 호(戶)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② 운영 과정에서 유치미(留置米)는 증가하고 상납미(上納米)는 감소하였다.

③ 인정, 족징 등 폐단이 심각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④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11.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제도’는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④ 대동법이 실시된 뒤에도 농민들은 진상(進上)이나 별공(別貢)을 통해 토산물이나 특산물을 여전히 부담하였고, 지방 관아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징수하기도 하였다.

① 대동법은 호(戶)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② 대동세는 중앙 정부로 상납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지방 관청의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점차 중앙 정부로 올리는 상납미(上納米)가 증가하면서, 지방 관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치미(留置米)가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 관청의 재정이 악화되자 수령 및 아전들은 지방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농민에 대한 수탈을 자행하였다. ③ 인정(隣徵), 족징(族徵)은 군역제의 폐단으로 이를 위해 영조 대 군역법이 도입되었다.

12. (가)~(라)의 설명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으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 (나)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 (다) 금산사 미륵전은 다포양식과 팔작지붕으로 지어졌으며,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건물이다.
- (라) 법주사 팔상전은 다층 목탑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12. 정답 : ②

- (가) 송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려시대 다각 다층탑을 대표하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월정사 대웅전 앞에 자리한 고려시대 석탑이다. (라)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 (나)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주심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12~13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다. (다) 금산사 미륵전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인조 13년(1635)에 다시 지이 그 후 4차례의 중수를 기쳤으며 17세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한 건축물이다.

13. 다음 중 밑줄 친 ‘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의 떳떳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일만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 선덕 신해년에 우리 왕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난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차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 고 하시고 … (후략)

- ① 『국조오례의』
 ② 『세종실록지리지』
 ③ 『향약집성방』
 ④ 『고려국사』

13.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세종 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의 서문이다.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서적에 실려 있는 것을 모두 찾고 열람하여 모범이 될 만한 총신 112명, 효자 110명, 열녀 94명을 뽑아서 전면에 그림을 그리고 후면에 사실을 기록하고 설명을 붙인 윤리서이다. 따라서 밑줄 친 ‘왕’은 ‘세종’이다.

- ③ 『향약집성방』은 세종 15년(1433)에 유효통, 노중례 등이 편찬한 의서이다.
 ① 『국조오례의』는 성종 5년(1474) 신숙주, 정철 등이 제사 의식인 「길례」, 관례와 혼

례 등의 「가례」, 사신 접대 의례인 「빈례」, 군사 의식에 해당하는 「군례」, 상례 의식인 「흉례」 등의 오례를 정리하여 편찬한 의례서이다. ②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장현대왕실록』의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이다. 조선 초기의 지리서로서 사서의 부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국가 통치를 위해 필요한 여러 자료를 상세히 다루었다. ④ 『고려국사』는 정도전이 태조4년(1395) 조선 건국 초기에 고려 멸망의 당위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편찬한 역사서이다.

14. 조선 후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서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연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 ② 김석문은 저서 『역학도해』를 통해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 ③ 홍대용은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자전과 공전을 설명한 『지구전요』를 저술하였고, 뉴턴의 만유인력설과 같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남루총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 ④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렌츠의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14. 정답 : ③

③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자전과 공전을 설명한 『지구전요』를 저술하고, 뉴턴의 만유인력설과 같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남루총서』를 저술한 인물은 최한기이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하루에 한 번씩 회전을 한다는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도 우월하지 않다는 것 등 파격적인 우주관을 피력하였다.

① 인조 대 제주도에 표류하여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벨테브레)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쳐 주었다. ② 김석문은 『역학도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④ 정조 대에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렌츠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만들 때 사용되어 공사 기간의 단축과 공사비 절감에 크게 공헌하였다.

밑줄 친 ‘수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修好) 때문이니 우리가 선린(善隣)하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위(專委)하여 수신(修身)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일을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나,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 보내어 에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①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어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받는다.
- ② 거중조정을 규정하였다.
- ③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④ 해양 측량권을 부정하였다.

15. 정답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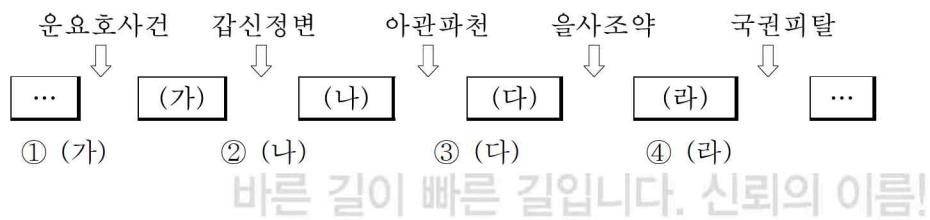
제시된 자료에서 제1차 수신사 김기수를 일본에 파견하게 된 계기가 된 수호 조약은 1876년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이다.

③ 조·일 수호 조규에는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기되었다.

① 조·일 수호 조규에는 최혜국 대우가 명기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명기된 것은 1883년의 조·일 통상 장정이다. ② 거중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은 1882년 4월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④ 조·일 수호 조규에는 조약의 내용에는 독소 조항으로 자유 해안 측량권과 치외 법권(영사 재판권)이 명기되어 있다.

16.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이 내용이 실린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촌의 어떤 여자 중에서 군자(君子) 수 삼 인이 개명(開明)에 뜻이 있어 여학교를 설시하라는 통문(通文)이 있기에 놀랍고 신기하여 우리 논설을 삭제하고 다음에 기재한다.”



16. 정답 : ③

제시된 연표에서 운요호 사건은 1875년, 갑신정변은 1884년, 아관파천은 1896년, 을사조약은 1895년, 국권피탈은 1910년이다.

③ 제시된 자료는 1898년 9월 8일자 황성신문의 제1면 사설로 실린 북촌 부인회의 여권통문이다. 이것은 최초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를 주장한 문서로서 기사의 ‘수 삼 인’은 발기인이며, 통문에 서명한 양반 부인은 300여 명이나 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연표에서 고르면 (다)이다.

17. 다음은 어떤 문서의 일부이다. 이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4조 …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 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러·일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하였다.

② 체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③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④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배경이 되었다.

17.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한·일 의정서로 러일 전쟁을 일으킨 직후 일본이

한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삼으려고 2월 23일 궁수농맹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문서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곳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한제국은 일본의 동의없이는 제3국과 의정서에 반하는 조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다.

① 일본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 임박하자 대한제국과 군사동맹 성격의 밀약을 체결하고자 공작하였다. 그러나 고종과 이용익을 비롯한 황실 측근 세력은 1904년 1월 국외 중립 선언을 비밀리에 추진함으로써 이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2월 8일 러일 전쟁이 일본의 선전 포고 없이 시작되면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중립 노선을 견지하던 황제 측근 이용익을 일본으로 납치하고, 기타 친러파 인사들을 감시하며 정부를 압박하였다. 대한제국은 결국 2월 23일 외부대신 이지용을 내세워 일본공사 하야시와 양국 간 전문 6조의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②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게 된 것은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조약 때문이다. ③ 1909년 체결된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 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었고, 감옥 사무 관할도 일본에 넘어가게 되었다. ④ 서재필 중심의 『독립신문』 창간은 1896년의 사실로, 한·일 의정서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음은 어느 단체의 공약 중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猛烈)히 실행하기로 함.
- 2.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하기로 함.
- 3.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된다.
… (중략) …
- 9. 일(一)이 구(九)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함.
- 10. 단의를 배반한 자는 처살한다.

- ① 대한광복군단을 조직하여 자유시(스보보드니)로 이동하였다.
- ② 신한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③ 유화현 삼원보에 경학사와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 ④ 3.1 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하였다.

18.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단체는 의열단(1919)이다.

④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 열혈청년 13명이 의열 활동을 위한 비밀 결사로서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였다.

① 청산리 대첩과 간도 참변 이후 만주의 독립군세력은 연해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일의 주도하에 밀산현에서 통일적 군사 조직인 대한 독립군단으로 조직되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가 적색군에게 무장 해제를 당하였다. ② 이상설, 이동휘, 이동녕 등이 연해주 신한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③ 서간도에서 활동한 신민회에 대한 서술이다.

다음 내용을 공동 선언한 정부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 (후략) ...

- | | |
|-----------------|-------------|
| ① 88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 ② OECD 가입 |
| ③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 ④ 금모으기운동 전개 |

19.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1991년 12월 31일 공동 채택한 선언문으로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 따라서 노태우 정권 시기의 사실을 찾는 문제이다.

- ① 노태우 정권 때인 1988년 제24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의 사실이다. ③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는 1972년 박정희 정권 때의 사실이다. ④ 금모으기 운동은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범국민적 운동으로 1997년 12월부터 1998년 초까지 진행되었다.

20. (가), (나)와 같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p>(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p> <p>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체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체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p> | <p>(나)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p> <p>… (중략) …</p> <p>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p> |
|--|---|

- ① (가) -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 ② (나) -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③ (가) - 상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하였다.
- ④ (나)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20. 정답 : ④

제시된 자료 (가)는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나)는 남북 기본 합의서(1991)이다.
 ④ 지방 자치제는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다가 노태우 정권 때 다시 부분적으로 시행(지방 의회 선거)되었으며,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전면적으로 시행(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되었다.

- ①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열었다.
- ②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91년 남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③ 김대중 정부 때 동티모르에 유엔 평화유지군(PKF)으로 상록수부대

를 파병하였다(1999).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